

‘2023년 전남교육 대전환 원년’ 선포

도교육청, 오는 ‘주요업무계획’ 설명회...정책 방향 공유 전남에서 배우고 일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청사진 제시

전남도교육청이 6일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2023 전남교육 주요업무계획 설명회를 갖고 ‘전남형 교육자치’와 ‘미래교육’을 통한 ‘전남교육 대전환 원년’을 선포한다.

5일 ‘2023 전남교육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 대전환의 기본방향을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의 비전과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이라는 학생상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4대 교육지표를 중점과제·세

부과제로 구체화하면서 당면 현안인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력향상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 ▲공감과 배려의 교육안전망 구축을 대전환 과제로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주민직선 4기 출범 2년째인 2023년을 ‘전남교육 대전환’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아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남 도내 고등학교 교장, 본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과)장 200여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

회는 전남교육 유튜브채널(전남교육TV)에 녹화·편집된 영상자료로 탑재된다.

“2023 전남교육 주요업무계획”은 지난달 15일부터 각 기관 및 각급 학교에 배부됐으며,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기관소개와 업무포털 업무DB에 파일로 안내돼 있다.

또한, 김대중 교육감과 김정희 정책국장, 백도현 교육국장, 박영수 행정국장 등 주요 간부들의 전남교육정책 설명으로 2023년 전남교육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사전 온라인시스템(페들렛)을 지난달 21일부터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온라인 시스템에 제시된 현장 제언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각 실·과 협

의를 통해 2023년 정책 추진에 담아낼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는 2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며, 각급 학교 및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2023 교육계획 수립 지원에 초점을 두고 준비했다. 도교육청은 지역별 여건·특성과 각 기관의 교육비전 반영된 교육계획을 통해 탄탄한 전남교육의 기반을 다져 나간다는 복안이다.

김정희 정책국장은 “학교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책임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다”며 “2023 전남교육은 기본을 찾는 미래교육, 전남 인재 선순환이 학교 현장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목포문태고-목포해양대, 해양안전교실 호응

목포문태고등학교는 최근 목포해양대학교와 연계해 ‘고교-대학연계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과 해양대학교 캠퍼스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이태원참사로 158명의 소중한 생명이 길을 잃은 것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를 화두로 진행했다.

문태고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7대 안전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국립 목포해양대학교에서 기획한 ‘우리같이 海, 참여형 해양안전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대학의 해양교육 시설을 구축·활용해 지역의 초·중·고 학생 및 일반 시민에게 해양안전의식 및 사고 대응 능력향상 맞춤형 교육과 정보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강의·특강을 기본 골자로 체험과 실습이 강조됐다. 해양수산부 목포해양고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양안전 교육활동을 제공했다.

학생들은 목포해양대학교 입학설명회를 시작으로 선박 VR체험, 마린 시뮬

레이션, 심폐소생술, 소화기 체험 등을 했다.

특히 마린 시뮬레이션 선박 체험과 구명뗏목 의장품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목걸이형과 조끼형 구명조끼도 직접 착용해봤다. 이후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4분을 지키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에서도 학생들 모두는 진지한 자세로 배움에 정성을 다했다.

해양안전교실에 참여한 김태희(2학년) 학생은 “선박화재 VR체험을 하면서 실제 선박에서 화재가 일어날 경우 대처해야 할 방법에 대해 상세히 배우게 돼 유익했다”며 “선박 마린시뮬레이션 체험을 통해 기상변화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고 조종하는지 교수님에게 직접 배워보니 매우 흥미로웠고 해양 분야에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한 이명주 교사는 “안전은 몇 번이고 수없이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모두의 안전을 위한 준비는 안전한 삶을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광주자연과학고, 스타 셰프 최현석 초청 특강

실무능력 향상·진로 선택 도움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가 지난 2일 조리과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현석 스타셰프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5일 광주자연과학고에 따르면 이번 초청 특강은 조리과학과 학생들의 전문 실무능력 향상과 진로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더불어 학생들의 사회 적응력을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날 특강은 강연장에서 조리과학과 1-3학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어 실습실에서 조리과학과 2학년들을 대상으로 실무특강(봉골레 파스타, 까르보나라)을 진행하고, 집중 지도를 위해 학급별로 각각 수업이 이뤄졌다.

이번 강연에서 최현석 셰프는 요리사 최현석이 요리에 입문해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재미있게 풀어내어 이야기했다. 아울러 요리사의 꿈과 갖고 있는 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도 진심어린 조언을 했다.

특강에 이어 진행된 실습특강에서는 봉골레 파스타와 까르보나라를 주제로 이론 수업을 진행했다. 최 셰프가 직접 시연을 한 후 학생들의 본격적인 실습이 시작됐다.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최 셰프는 실습실을 순회하며,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개별지도했다.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는 지난 2일 조리과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현석 스타셰프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광주자연과학고 제공)

한편 광주자연과학고는 강연이 시작되기 전 최현석 셰프를 위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학생들이 요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돼 준 꿈의 멘토 최현석 셰프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학생들의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날 특강에 참여한 최현석 셰프는 2007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예술계 30대 기수로 선정될 만큼 실력을 인정받은 인물로, 분자요리를 비롯한 수백

여 가지의 메뉴를 개발한 창의적 감각의 스타 셰프다. 요리사라는 직업을 넘어 요리문화 신드롬을 일으킨 주인공으로서, 셰프의 대중화에 크게 일조한 인물이기도 하다. ‘한식대첩’, ‘냉장고를 부탁해’, ‘셰프끼리’, ‘육가대표’, ‘수미네 반찬’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모두에게 친숙하다.

학생들을 위한 마음으로 먼 길을 달려와 준 최현석 셰프는 “학생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니 강의를 위한 준비에 있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준비하시라”고 전해 학교측에서는 매우 감동했다는 후문이다.

광주자연과학고 최범태 교장은 “요리문화 신드롬을 일으킨 최현석 셰프가 직접 분교에 방문해 학생들을 위한 강연을 진행해줘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동강대 외식조리제빵과 전국무대 휩쓸어

해남미남요리대회 최우수상·동상...‘청년 쌀’ 경연 3팀개 수상

동강대학교 외식조리제빵과가 전국 요리대회를 휩쓸며 뛰어난 솜씨를 뽐냈다.

동강대 외식조리제빵과는 최근 해남군에서 개최된 ‘제2회 해남미남 전국요리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과 동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지역의 농수산물물을 활용한 퓨전요리 경연으로 2인1조로 팀을 구성해 메인요리와 디저트를 출품했다.

동강대 외식조리제빵과는 윤준상·한

종규(이상 1년) 팀이 최우수상(전남도지사상), 김경태·임현희(이상 2년) 팀은 동상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지난달 동강대 외식조리제빵과는 창조적인 쌀 요리 아이디어 발굴과 쌀 소비 촉진, 창의적인 남도음식문화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열린 ‘전국 청년 쌀 요리 경연대회’에서도 3개 팀이 입상, 2년 연속 수상자를 배출했다.

/임채만 기자

광주대 ‘서류부터 면접까지’ 입사지원 경진대회

광주대학교가 재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광주대 대학일자리센터는 지난 10월

부터 2개월간 입사서류 및 면접 준비를 통한 채용 프로세스 경험과 최신 채용 동향에 대한 취업 방향을 알려주는 ‘모

의입사지원 경진대회’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를 통과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모의면접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모의면접 교육은 성공적인 면접을 위

한 이미지 메이킹과 특강 등의 내용으로 마련됐다.

이러한 경진대회는 4인 1조 실전 모의 면접을 통해 장점과 단점 등을 피드백하고 서류전형 10명과 면접 우수자 10명에 대한 시상으로 종료됐다. /임채만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주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